

■ 기획진단 - '직업병 공장' 원진레이온의 여성노동자들

“모성 파괴는 직업병 기준에도 없어요”

이황화탄소 중독증 위협 외에도 대부분 생리이상 경험, 모자건강 역학조사 실시돼야

‘직업병 생산공장’. 오랫동안 근무한 노동자들이 자조적으로 불려온 원진레이온의 또다른 이름이다. 술한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CS₂) 중독증에 걸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공식’ 직업병환자가 처음 나왔던 지난 88년 이후 91년에 또 다시 직업병환자가 발생해 떠들썩한 사회문제가 됐지만 이내 일반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91년 원진의 노동자인 권경웅 씨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 자살하고 꼭 2년이 경과한 지난 5월23일 현직 여성노동자인 고정자 씨가 또다시 고통에 시달리다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자살했다. 이로써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전현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들의 직업병을 인정하고 치료지원을 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편집자 주>

증상 뚜렷해도 하소연할 곳 없어

“이렇게 쉽게 인정해줄 것을 왜 죽기 전에는 못해 줘니까. 그랬으면 치료라도 더 받을 수 있었을텐데...”

지난 5월23일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 자살한 원진레이온 여성노동자 고정자(44) 씨가 직업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사망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그가 지난 3월부터 직업병 여부에 대한 특수정밀검진과 입원치료를 받았던 고려대 부속병원에서는 내내 결과통보를 미뤄오다가 그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직업병소견서를 발급해줬다. ‘만성적으로 CS₂ 가스에 노출된 직업력 및 심장의 허혈소견, 청각장애 소견 등을 보여 CS₂ 중독증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것은 검진소견의 인정이고 아직까지도 노동부에서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인정여부는 앞으로 원진직업병 문제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씨와 함께 지난 78년에 원진에 입사해 최근까지 15년간을 근무한 남편 심상운 씨도 2년 전에 실시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역학조사 결과 CS₂ 중독 직업병유소견자로 밝혀져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지난 4~5년 동안 안 다녀본 병원이 없어요. 이황화탄소 중독은 한번 온몸이 쭈시기 시작하면 송곳으로 찌르는 것같이 아파요. 그러다가 마비가 오고 머리까지 뻗으면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심지어는 나무를 끌어안고 자면 나아진다고 해서 나무토막을 껴안고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체검사하고 2년이 넘도록 직업병이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아 처가 더욱 괴로워하고 우울해 했어요.” 심 씨는 “이처럼 증상은 너무나 뚜렷한데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게 이황화탄소 중독증”이라고 말한다.

직업병 노동자 70% 이상이 퇴직 후 증후 나타나

원진레이온의 전현직 노동자 가운데 이황화탄소 중독증상을 보여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내고

검진을 마친 사람은 3백58명. 이중 직업병 판정을 받고 월급의 70%인 산재급여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2백29명이고 나머지는 “증상은 똑같은데 인정을 못받아”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신체마비, 고혈압증세로 인한 뇌졸중, 신장조직에서의 사구체경화, 언어장애 등의 일반적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외에도 모성의 파괴라는 또 하나의 고통을 안고 있는 여성은 44명에 이른다.

이황화탄소 중독의 경우 그 증상은 대개 퇴직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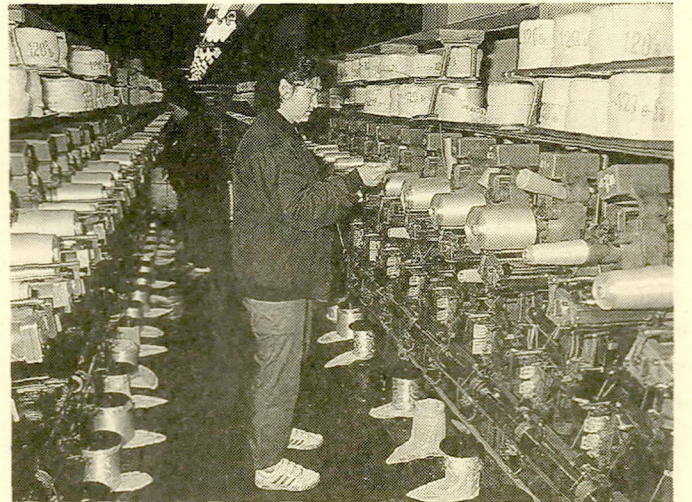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 자살한 원진레이온 여성노동자 고정자 씨의 빈소 함께 원진에 근무한 노동자로 직업병을 앓고있는 남편 심상운 씨가 망연자실해 있다.



에야 발견된다. 구리노동상담소 박무영 소장에 의하면 “직업병 노동자의 70%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퇴직한 이후에 증후가 나타나는데 이는 CS₂ 중독이 그만큼 오랜동안 누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원진레이온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1천여명 가운데 3백여명의 여성노동자는 직업병 기준에 들지도 못하는 생리불순, 자연유산, 미숙아 출산 등의 위험에 놓여 있다.

원진레이온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개 후처리과에서 일한다. 인조견사가 타래형태로 만들어



▲원진의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후처리 포장반.

지면 이를 세척, 건조, 포장해야 하는데 이런 후처리과정 중 포장반은 이황화탄소가 발생하는 방사과에서 직접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인정하는’ 유해부서로 되어 있다. 원진의 여성노동자들은 공동적으로 겪고 있는 만성적인 두통과 몸살 그리고 전신, 하반신 무력증과 기억력 감퇴, 신경장애로 인한 성격변화 등의 증상 외에도 생리 이상을 누구나 경험한다.

월경장애·자연유산 발생 외국선 공식적으로 밝혀져

“이곳에서 여자면 누구나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심한 생리불순이에요. 어느 부서를 가릴 것도 없이 생리통도 극심해지고 아예 몇달씩 중지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원진의 여성노동자들은 늘 진통제와 몸살약을 끼고 살면서도 이 정도는 ‘호강병’이라고 생각했고 생리 이상을 경험하면서도 개인의 허약한 체질 탓으로 돌려야 했다.

이황화탄소 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직업병 인정기준에는 생리 이상과 관련된 것은 포함돼 있지 않기도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여성에게서 월경장애, 월경혈증, 자연유산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직업병과 모성건강에 관한 역학조사를 주장했던 중앙대 예방의학과 장임원 교수는 “외국에서는 이미 1890년대에 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19세기 이후엔 CS₂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환경이 개선돼 그후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황화탄소에 여성이 노출됐을 때 자연유산이 발생하는 것은 이 CS₂ 가스가 태반을 쉽게 통과해 태아의 조직내 농도를 모체의 것과 같게 하기 때문이다. 태아조직에 흡수된

이황화탄소가스는 설령 태아가 유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생 후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 지능,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의학전문인들의 염려다. 따라서 뜻있는 전문가들은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여성이 낳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여성이 낳은 아이의 성장을 비교하는 역학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작업장의 환경과 모성건강을 연결하는 이러한 주장을 펴는 이들은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직업병 판정 여전히 인색

원진직업병 노동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노동부의 인정기준은 예전보다 개선돼 ‘뇌의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아 뇌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없어도 직업병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91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명된 사람들에게 대해서조차 노동부의 직업병판정은 인색하기만 하다.

현재 원진의 전현직 노동자들은, 직업병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5월1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휴업조치를 취한 회사측이 원진을 매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싸여 있다. “원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고통스런 체험으로 보여준 직업병은 묻혀지고 미래에 다시 누군가 이런 고통을 치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들의 표현대로 “너무나 꿈같은 얘기”지만 모성에 대한 고려는 이제 노동과 직업병을 거론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예방의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모성에 생기는 이상은 ‘덜 중요한 증후’가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다음세대의 생명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최창희 기자)